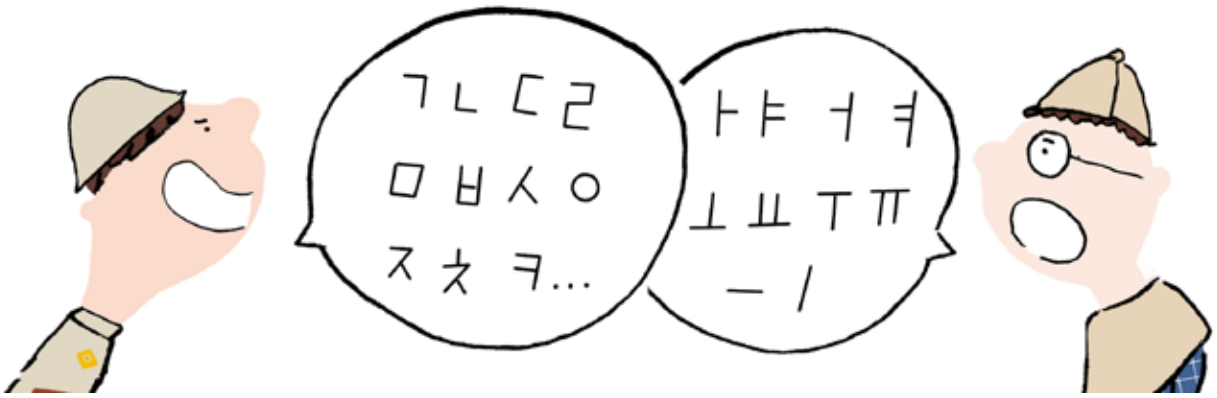
07

말놀이탐험대

입으로 놀자
내가 만든 ㄱㄴㄷ



놀자, 놀자, 입으로 놀자!

분 야 구전 시가, 말놀이

목 표 말놀이는 의사소통의 수단인 말을 놀이로 즐기는 활동입니다. 언어의 반복과 운율, 소리와 뜻, 내용이 담고 있는 해학성들을 이용하여 재미와 웃음을 줍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놀이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기도하고 말장난으로 언어의 규칙과 의미를 비틀기도 하고, 새로운 표현과 말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짧게 혹은 길게 얼마든지 변형해가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말놀이를 소개 합니다.

주제도서 께롱께롱 놀이 노래(CD 포함) / 편해문 엮음, 윤정주 그림, 보리. 2008

사진

활동 예시

참고도서

- (옛아이들 노래1) 동무동무 씨동무(CD포함) / 편해문 글, 박향미 그림, 창비. 1998
- (옛아이들 노래2) 가자가자 감나무(CD포함) / 편해문 글, 박향미 그림, 창비. 1998
- 호랭이 꼬랭이 말놀이/ 오호선 글, 남주현 그림, 길벗어린이. 2006
- 한국 전래 동요 1,2/ 신경림 엮음. 창비. 2001
- 시리동동 거미동동/ 우리 시그림책, 권윤덕 그림, 창비. 2003
- 옛날 옛적 갓날 갓적1,2/ 어린이도서연구회 발간 자료집. 2007, 2014
- 옛 아이들의 노래와 놀이 읽기/ 편해문 엮음, 박이정. 2002
- 옛날 옛적 이야기/ 한상수 엮음, 충청남도. 1991
- 잘잘잘123/ 이억배 글 그림, 사계절. 2008
- 빨주노초파남보 색깔 말놀이/ 박정선 글, 윤미숙 그림, 시공주니어. 2010

활 동 | 01. 불러보자, 놀아보자

여러분이 아는 말놀이가 있나요? 노래는 '놀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놀다보면 저절로 중얼중얼 노래가 나오고 노래를 부르면 놀이가 한층 더 즐거워지지요.

준비하기 주제도서 및 CD, 모둠

활동하기

1. 여러분이 아는 말놀이 있나요? 친구들과 재미있는 가사를 만들어 부르거나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말꼬리를 이어 부르거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부르는 노래 말의 소리와 뜻으로 만든 말장난 같은 것들이모두 말놀이입니다. 아는 것이 있으면 한번 불러보세요.

   - 요즘 하는 말놀이의 사례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복잡할 땐 볶음밥, 탕탕탕탕 탕수육
     미나리 먹고 미쳤나 도라지 먹고 돌았나 생강 먹고 생각 좀 해!
     깡통에 보리방구 누가 꼈을까 니가 꼈다 내가 꼈다 싸우지 말고
     냄새가 난다~ 뿡뿡르 뿡뿡 뿡~웅!

2. 옛날부터 입으로 전해오는 말놀이를 전래동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불리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것들도 있지요. 입으로 전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음이나 가사가 있지않아요. 부르는 지역마다 조금씩 말이 다르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책이나 자료에 있는 말과 똑같이 하지않아도 되요. 함께 해볼까요?
   〈께롱께롱 놀이 노래〉에 있는 것 중 몇 개를 골라 함께 불러 봅니다. 아이들이 직접 고르고, 고른 아이가 먼저 불러도 좋습니다. 잘 부르지 못하면 CD를 틀어 함께 들어봐도 좋습니다.

3. 말놀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먼저 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전래동요나 말놀이는 그 자체로도 놀이지만 몸으로 하는 놀이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익숙하게 느껴지는 노래도 있을 거예요. 입으로 으로 함께 놀아보아요.

   - 눈가리기 〈께롱께롱 놀이 노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쥐란 놈이 물어도 꼼짝 말고 달싹 마라
     개미란 놈이 물어도 꼼짝 말고 달싹 마라

   - 숨박꼭질 〈께롱께롱 놀이 노래〉

     고추장, 된장? 고추장! 꼭~꼭 눌러라!
     고추장, 된장? 된장! 되~게 눌러라!

-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를 하면서 부릅니다.

  우리집에 왜 왔니 왜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OO(이름)이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 바위, 보"

- 다리뽑기 (충북 충주지방) 〈한국 전래 동요집2〉 122쪽

  이 거리 저 거리 각거리
  견사 만사 주머니끈
  쫙 벌려 새양강
  목화밭에 독서리
  구시월에 무서리
  동 지 섣 달 대 서 리

* 다리 뽑기 놀이를 하며 부릅니다.
- 서로 다리를 어긋나게 끼웠다가 이 노래가 끝나는 차례에서 다리를 뺍니다.
- 끝 구절은 한 자, 한 자 떼어서 부릅니다. 두 다리를 먼저 뺀 사람이 양반입니다.

4. 가장 쉬운 말놀이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나 비슷한 소리가 나는 말을 반복하면서 리듬이생기고 흥이 납니다. 함께 소리를 맞추어 부르기도 하고 익숙해지면 외워서 부르기도 하고 끝까지 빠르게 틀리지 않고 부르기 내기를 하며 놉니다.

- 〈가자가자 감나무〉 23쪽

  별 하나 따다가 탱자나무 걸고 매고 짜고 / 별 둘이 따다가 탱자나무 걸고 매고 짜고
  별 서이 따다가 탱자나무 걸고 매고 짜고 / 별 너이 따다가 탱자나무 걸고 매고 짜고
  별 다섯 따다가 탱자나무 걸고 매고 짜고 / 별 여섯 따다가 탱자나무 걸고 매고 짜고
  별 일곱 따다가 탱자나무 걸고 매고 짜고 / 별 여덟 따다가 탱자나무 걸고 매고 짜고
  별 아홉 따다가 탱자나무 걸고 매고 짜고 / 별 열이 따다가 탱자나무 걸고 매고 짜고
  다 땃다.

- 〈가자가자 감나무〉 33쪽

  갈밭에 갈잎이 갈-갈 / 대밭에 댓잎이 대-대
  솔밭에 솔잎이 솔-솔 / 무당의 부채가 훨-훨
  양반의 갓신이 떨-떨 / 누나의 치마가 펄-펄
  한량의 장구가 떵-떵 / 보리밥 방구가 뿡-뿡

- 〈가자가자 감나무〉 63쪽

  앉은 고리는 동고리 / 선 고리는 문고리
  나는 고리는 꾀꼬리 / 뛰는 고리는 개고리

5. 말놀이 중에는 발음이 어려운 말을 또박또박 말하는 것을 익히며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누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말하는지 겨루어봅니다.

- 〈가자가자 감나무〉 38쪽

  저 지붕위에 콩깍지는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저 건너 말뚝이 소 맨 말뚝이냐 말 맨 말뚝이냐?
  저 건넛마을 김부자네 시렁위에 얹힌 푸른청청조좁쌀이
  쓸은 푸른청청조좁쌀인가 아니 쓸은 푸른청청조좁쌀인가?

  * 쓸은: 곰팡이가 핀

6. 주고받는 말놀이도 있습니다.
   묻고 답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말을 뒤에(어미에) 붙여 이야기를 나누기도합니다.
   친구와 함께 암호처럼 서로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께롱께롱 놀이 노래〉 42쪽

  어디까지 왔나 / 아직 아직 멀었다
  어디까지 왔나 / 동네 앞에 왔다
  어디까지 왔나 / 개울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나 / 대문까지 다 왔다!

- 〈가자가자 감나무〉 54쪽

  오란께롱 / 간께롱 / 부엌문을 / 연께롱
  부뚜막을 / 본께롱 / 누릉지가 / 있은께롱
  달란 께롱 / 준께롱 / 먹은 께롱 / 꼬신께롱
  더 달란께롱 / 안 준께롱 / 운께롱 / 더 준께롱
  먹은께롱 / 꼬신께롱 / 배부른께롱 / 방귀 뀐께롱
  배고픈께롱 / 돌아본께롱 / 동무께롱 / 미안한께롱

- 〈옛날옛적 갓날갓적2〉 331쪽

  가벼우냐 맹꽁 / 무거웁다 맹꽁
  무거우냐 맹꽁 / 가벼웁다 맹꽁

7. 말꼬리를 엮어가는 말놀이는 말의 뜻이나 단어의 특징을 이어받아 내용을 이어갑니다.

- 〈께롱께롱 놀이 노래〉 29쪽

  까마귀는 날더라 / 날면 제비 / 제비는 울긋불긋 / 울긋불긋 독사 / 독사는 물더라
  물면 범이지 / 범은 뛰더라 / 뛰면 벼룩이지 / 벼룩은 붉더라 / 붉으면 대추
  대추는 달더라 / 달면 엿이지 / 엿은 붙는다/ 척!

- 〈께롱께롱 놀이 노래〉 32쪽

  하늘천 따지 / 가마솥에 누룽지 / 벅벅 긁어서 / 훈장님은 똥가래 / 나는 은수저
  훈장님은 퍼먹고 / 나는 잡숫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 / 사과는 맛있어 /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 기차는 빨라 / 빠르면 비행기 /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8. 말놀이에는 숫자세기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앞에 불러본 별 헤는 노래처럼 반복하면서 숫자를 세기도 하고, 다리빼기 놀이에서처럼 수는 아니지만 순서를 세는 것도 있고, 수를 세는 재미있는 말도 있습니다.

- 〈가자가자 감나무〉 37쪽

  한 놈 두시기 석 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게 팔다리 구들장 쨍그랑

- 〈잘잘잘123〉

  하나하면 할머니가 호박을 이고서 잘잘잘
  둘하면 두더지가 땅굴을 판다고 잘잘잘
  셋 하면 생선장수 생선을 사라고 잘잘잘
  넷 하면 네쌍둥이 나팔을 분다고 잘잘잘
  다섯 하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나른다고 잘잘잘
  여섯 하면 여우들이 연날리기 한다고 잘잘잘
  일곱 하면 이발사가 머리를 깍는다고 잘잘잘
  여덟 하면 영감님이 염소를 끌고서 잘잘잘
  아홉 하면 아이들이 윷놀이를 한다고 잘잘잘
  열 하면 여럿이서 여행을 한다고 잘잘잘

9. 꼬부랑 할머니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말놀이면서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옛날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나아갑니다. 이야기의 길이와 내용도 사람마다 동네마다 다릅니다. 한사람씩 전부 읽거나 혹은 여럿이서 조금씩 나누어 읽어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읽거나 노래처럼 운율을 살려서 읽어도 좋습니다.

- 〈께롱께롱 놀이 노래〉 40쪽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길을 가다가 꼬부랑 똥이 마려워 꼬부랑 나무위에 올라가지고
  꼬부랑 똥을 누니까 꼬부랑 개가 날름 먹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로 딱 때리니까
  꼬부랑 강아지가 꼬부랑 깽깽 꼬부랑 깽깽 네 똥 먹고 천년 사나
  내 똥 먹고 만년 살지하면서 도망가더래

• 〈호랭이 꼬랭이 말놀이〉 18~22쪽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 꼬부랑 고개를 / 꼬부랑 넘어 갔더니
꼬부랑 바위에 / 꼬부랑 토끼가 / 꼬부랑꼬부랑 / 춤을 추었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 꼬부랑 토끼랑 / 꼬부랑 춤을 추면서
꼬부랑 고개를 / 꼬부랑 넘어가니까
꼬부랑 나무에 / 꼬부랑 다람쥐가/ 꼬부랑꼬부랑 / 재주를 넘었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토끼랑 / 꼬부랑 다람쥐랑 / 꼬부랑 황새랑
꼬부랑꼬부랑 목을 빼고 / 꼬부랑꼬부랑 / 노래를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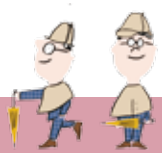
꼬부랑 할머니가 / 꼬부랑 토끼랑 / 꼬부랑 다람쥐랑 / 꼬부랑 황새랑
꼬부랑꼬부랑 목을 빼고 / 꼬부랑꼬부랑 / 노래를 하면서 /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니까
꼬부랑 칡넝쿨이 / 꼬부랑꼬부랑 뻗어 나와 / 꼬부랑꼬부랑 집을 지었어요.
꼬부랑꼬부랑 했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 꼬부랑 토끼랑 / 꼬부랑 다람쥐랑 / 꼬부랑 황새랑 / 꼬부랑 칡넝쿨이랑
꼬부랑꼬부랑 집을 짓고 / 꼬부랑꼬부랑 뜰을 짓고 / 꼬부랑꼬부랑 꽃을 심었어요.

꼬부랑 식구 모두 외쳤어요.
"꼬부랑 할머니, 배고파요. / 꼬부랑 떡 먹고 싶어요!"
그래요, 모두 떡을 빚을까요?

새하얀 쌀가루를 / 눈처럼 곱게 빻아 / 쫀득쫀득 반죽해서 /동글동글 빚어서
가마솥에 올려놓고 쪄요. / 김이 폭폭 올라오게요.
꼬부랑 할머니가 / 꼬부랑 토끼랑 / 꼬부랑 다람쥐랑 / 꼬부랑 황새랑 / 꼬부랑 칡넝쿨이랑
꼬부랑 떡을 먹고 있네요.

먹고 싶은 사람 오세요.



참 고

1. 말놀이는 많이 불러보고 반복하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 소개된 말놀이중 하나만 혹은 한 종류만 가지고도 한 차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독서교실의 시작과 마무리 활동으로 말놀이를 불러 볼 수도 있습니다.
4. 활동1과 활동2는 특별한 구분이 없습니다. 부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단어와 내용을 바꾸고 새로 만들어 붙여도 됩니다.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반응에 맞추어 말놀이를 고르고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즐기면 좋겠습니다.
5. 말놀이 시간을 마무리 할 때는 배운 말놀이 중에서 제일 맘에 드는 것을 한 가지씩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도 함께 불러보도록 합니다.

활 동 | 02. 새로 만들어서 이어가는 말놀이

동네마다 비슷한 놀이와 말놀이가 있어요. 사용된 말이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말놀이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만들어 부르면 되는 거예요. 말의 리듬을 즐기면서 여러분도 자기만의 말놀이를 만들어 보세요.

준비하기 주제도서 및 CD, 모둠

활동하기

1. 〈께롱께롱 놀이 노래〉에서 '가자가자 감나무'를 함께 부릅니다.

- 〈께롱께롱 놀이 노래〉

가자가자 감나무 오자오자 옻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입맞추자 쪽나무
바람솔솔 솔나무 방귀뀌는 뽕나무
십리절반 오리나무 빠르기도 하지 화살나무

2. 이 노래들을 또 어떻게 다르게 부르는지 적어 놓았어요. 같이 불러 봐요.

가자가자 갓나무 / 오자오자 옻나무
화랑이 꼬랑이 / 개구리 대구리

(강원도 이천)

가자가자 갓나무 / 오자오자 옻나무
김치 가지 꽃가지 / 맨드라미 봉숭아

(경기도 고양)

가자가자 감나무 / 오자오자 옻나무
바람 솔솔 솔나무 / 방귀 뽕뽕 뽕나무~
그때 대나무가 대끼놈!! 하니까
참나무가 참아라, 참아라 하더래.

* 율동과 함께 해보면 더 즐거워요

가자 가자 감나무 / 오자 오자 옻나무
갓난아기 자작나무 / 거짓말 못해 참나무
꿩의 사촌 닥나무 / 낮에 봐도 밤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 입맞추자 쪽나무
동지섣달 사시나무 / 따끔따끔 가시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 방귀뀌는 뽕나무
십 리 절반 오리나무 / 아흔 지나 백양나무
앵돌아져 앵두나무 / 칼로 찔러 피나무
업어졌다 엄나무 / 자빠졌다 잣나무
서울 가는 배나무

3. 위의 말놀이 중에서 원하는 3. 것을 골라, 새로 만들어 불러 봅시다.

자자 자자 _____나무 / 떡해 먹자 _____나무
달 가운데 _____나무 / 밑구멍에 _____나무
죽었네 _____나무 / 살았네 _____나무
불 밝히자 _____나무/ 속 비고 _____나무
빠르구나 _____나무 / 깔고 앉아 _____나무

4. 아래의 말놀이를 불러보고 뒷 노래를 이어 만들어 봅니다.

이서방 일하러 가세 / 김서방 김매러 가세
조서방 조 털러 가세 / 박서방 박타러 가세
신서방 신이나 삼세 / 배서방 배 사러 가세
_____ / _____
_____ / _____
_____ / _____

오골 쪼골 박 서방 / 한 짐 가득 진 서방 / 삐쩍 마른 강 서방 / 한 잔 두 잔 권서방
욕심 많은 배 서방 / 소금 파는 염 서방 / 서캐 할배 이 서방
_____ 서방 / _____ 서방 / _____ 서방 / _____ 서방

엿장수 똥구멍은 찐득찐득 / 두부장수 똥구멍은 몽실몽실
옹기장수 똥꾸멍은 반질반질 / 참기름장사 똥구멍은 미끌미끌
소금장수 똥구멍은 짭잘짭잘 / _____

5. 아래의 말놀이를 불러보고, 바꾸어 지어봅니다

쥐야 쥐야 니 어데 잤노 - 부뚜막에 잤다
뭐 덮고 잤노 - 행주 덮고 잤다
뭐 비고 잤노 - 주걱 비고 잤다
뭐가 깨물더냐 - 개미가 깨물더라

쥐야 쥐야 니 어데 잤노 - _____
뭐 덮고 잤노 - _____
뭐 비고 잤노 - _____
뭐가 깨물더냐 - _____

- 예시)

쥐야 쥐야 니 어데 잤노 - 책상위에 잤다
뭐 덮고 잤노 - 시험지 덮고 잤다
뭐 비고 잤노 - 지우개 비고 잤다
뭐가 찌르더냐 - 연필이 찌르더라

- 방귀타령

시아버지 방구는 너털방구 / 시어머니 방구는 요망방구
아버지 방구는 호랑방구 / 어머니 방구는 근심방구
며느리 방구는 부끄럼방구 / 딸 방구는 연지방구
머슴 방구는 마당방구

(충북 영동)

우리 형도 방구쟁이 / 사춘 형도 방구쟁이
물 좋고 산 좋은데 / 방구 타령 나갑세
시애비 방군 호령방구 / 시어미 방군 걱정방구
새서방 방군 글방구 / 며느리 방군 도적방구
딸의 방군 연주방구 / 절가 방군 마당방구
방구타령 나갑세

(평북 신의주)

할아버지 방구는 _____방구 / 할머니 방구는 _____방구
아버지 방구는 _____방구 / 어머니 방구는 _____방구
방구는 _____방구 / 방구는 _____방구
동생 방구는 _____방구 / 내 방구는 _____방구

6. 모둠별로 혹은 한 사람씩 만든 말놀이를 발표하며 같이 불러 봅니다.
7. 자기가 만든 말놀이는 가족들과 함께 꼭 불러 보세요.

내가 만든 ㄱ ㄴ ㄷ

분　야　말놀이

목　표　우리말의 기본인 ㄱㄴㄷ과 관련하여 다양한 책과 말놀이가 있습니다. 풍부한 어휘를 경험하고 만들어봅니다.

주제도서　요렇게 해봐요(내 몸으로 ㄱㄴㄷ)/ 김시영 글 그림, 마루벌, 2011

활　동

준비하기　주제도서, 필기도구, 활동지(첨부)

활동하기

1. 우리나라 말은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어떤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오늘은 우리말 자음인 ㄱㄴㄷ으로 놀아 볼 거예요. 우선 말놀이 하나를 같이 불러 봅니다.

   가갸 가다가 거겨 거렁에 고교 고기잡아 구규 국 끓여서
   나냐 나하고 너녀 너하고 노뇨 노나먹자

2. 〈요렇게 해보아요〉를 읽어줍니다. ㄱㄴㄷ을 몸으로 표현해 보는 놀이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볼수 있습니다.

   (1) 한 사람이 한 글자씩 만들어봅니다.
   (2) 팀을 이루어 2명이 한 글자, 3명이 한 글자를 만들어 봅니다.
   (3) 두 팀으로 나누어 상대팀에게 글자를 미션으로 주면 해당 팀에서 표현합니다.
   (4) 어려운 글자를 주고 먼저 성공하는 사람(혹은 팀)이 이깁니다.

참고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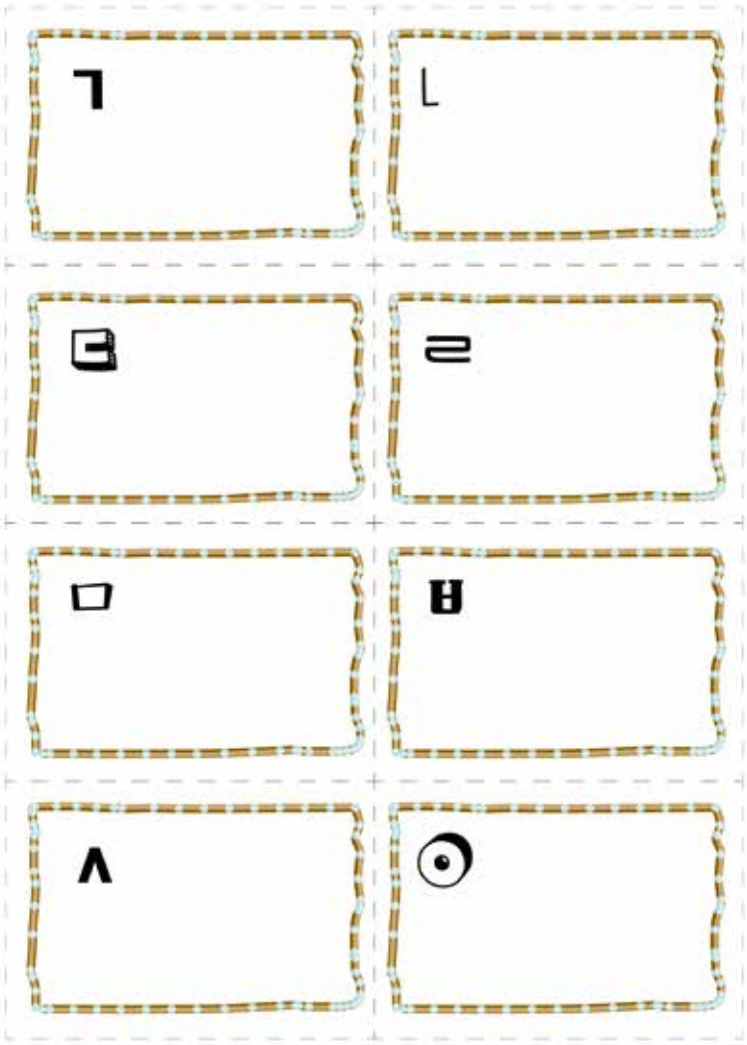
아래의 책들은 어휘의 난이도가 다르므로 대상에 따라 골라 씁니다.

- 개구쟁이ㄱㄴㄷ/ 이억배 글 그림, 사계절, 2005
- 기차 ㄱㄴㄷ/ 박은영 글 그림, 비룡소, 2007
- 생각하는 ㄱㄴㄷ/ 이지원 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그림, 논장, 2005
- 행복한 ㄱㄴㄷ/ 최숙희 글 그림, 웅진주니어, 2014

3. 〈개구쟁이ㄱㄴㄷ〉, 〈기차 ㄱㄴㄷ〉, 〈생각하는 ㄱㄴㄷ〉 책들 중에서 하나를 읽어 줍니다. 주어진 활동지에 적힌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그림과 함께 그려서 완성합니다. 미션은 대상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각 장마다 단어만 적어 카드를 만듭니다.
(2) 각 장에 같은 자음으로 연결된 문장 하나를 완성합니다.
(3) 활동지 ㄱ ㄴ ㄷ 카드를 종이에 붙이고 각 장마다 문장과 그림을 엮어 그림책으로 완성합니다.

4. 만든 카드나 책을 전시합니다. 기념촬영도 꼭 해보세요.



활동지

ㄱㄴㄷ카드